AND

I Art & Disability I

2020_Spring_Vol.1



사.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우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401호
전화 : 02-304-6211 / 팩스 : 02-304-6311 / 이메일 : jangyechong@fdca.or.kr

사.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AND | Art & Disability |

발행처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발행인
홍이석

편집인
고재오

편집위원
장예총 기획팀

디자인
디자인 달리

홈페이지
www.fdca.or.kr

· 본 소식지는 장예총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상작
잠들지 않는 거리 _ 강현지

오늘날 도시인들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낮과 밤, 다양한 형태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때로는 분주하게, 또한 느리게, 또는 무신경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표현해보았다.

Contents

4p
창간축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_ 박양우

6p
기분 좋은 만남
인터뷰 _ 장예총 홍이석 상임대표

10p
장예총과 함께하는 예술 FAMILY
회원단체 소개

22p
장예총이 하는 일
주요사업 소개

24p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미술대전 Review
이광복, 임일호

26p
예술공감
장예총이 만나는 아티스트 _ 김지연, 이정우, 김희철, 강현지

30p
장예총이 전하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

32p
장애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34p
2020년 행사 일정
장예총 사업 / 회원단체 사업







AND

AND는 Art & Disability의 약자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통합하는 온라인 화합의 장으로 기획한
장예총의 새로운 계절 소식지입니다.



창간 축하의 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 양 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장애인문화예술 소식지 '앤드(AND, Art & Disability)'를 처음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발간을 위해 애쓰신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홍이석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함께해주신 장애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장애예술인 여러분의 예술 활동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삶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식지 '앤드(AND)'를 통해 여러분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장애인예술의 흐름과 정보를 공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식지 '앤드(AND)'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창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모든 장애예술인들이 더욱 좋은 여건에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공연장을 만들고,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중장기 발전 방안도 마련해 장애예술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앤드(AND)'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장애인문화예술을 사랑해주시는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술에는 경계도, 구분도, 차이도 없다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홍이석 상임대표와의 기분 좋은 만남

2020년 경자년의 초입, 예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의 창이라는 문장이 와 닿았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에 와닿는 그림 한 점과, 귓가를 간지럽히는 음악 한 소절, 머릿속을 맑게 깨워주는 글은 성별과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매개 아니던가. 예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지우고, 구분을 무너뜨리고, 차이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녔다는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홍이석 상임대표의 한마디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할 터. 예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난해 장예총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전진할 지도까지 세밀하게 그려낸 인터뷰, 지금 시작한다.

설레는 첫인사

장예총 소식지 AND의 첫걸음에 누구보다 커다란 박수를 보낼 한 사람, 바로 2020년 장예총이 띄울 찬란한 무지개의 선봉에서 서 있는 홍이석 상임대표와 기분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가 전하는 힘찬 인사는 곧장 지난 1년간 장예총을 이끌어간 소회로 이어졌다.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법인이 모인 단체가 우리 장예총입니다. 전국 각지의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예술가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2019년부터 제가 4대째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람이 큰 만큼 아쉬움도 없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 장애인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요. 마음만큼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를 때의 아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쉬움이 크다는 건 온 마음 다해 열정을 쏟았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이토록 뜨거운 열정이 낳은 보람은 무엇일까?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제주도 3박 4일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 장애인들은 활동 범위가 좁아요.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는 사람들끼리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오신 100여 명이 소통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 프로그램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했냐'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좋은 울림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도 보람이 커요. 초창기에 비해 출품작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품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참여하신 작가분들께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꾸준히 발전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느껴질 때 감동받는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은 경계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차이도 차별도 없어요. 동일 선상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노력 뒤에 깃든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가 닿을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디딤돌 딛기

지난 1년 동안 맺은 결실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찬란하게 부서지는 햇살과 어깨동무하며 무럭무럭 자랄 새싹에게는 풍족한 빗물도 적당한 바람도 필요한 법. 장예총 발전을 위해 홍이석 상임대표가 꼽은 필수 영양소를 들어보자.

"우리 장예총이 어떤 일을 해야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연결점을 꼽고 싶어요. 소외된 지역의 감추어진 분들에게 희망의 기회가 나뉘어야 하거든요. 각 지역에 단체를 만들어서 예술가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첫 째 목표예요. 두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요청한다 해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예산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은 너무 단순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올해는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장예총이 사단법인이기는 해도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못 받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흥법도 만드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부분 또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서 각 단체를 지원하는 게 장예총의 외적인 발전 방향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 단단한 땅을 다지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안에 장예총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홍이석 상임대표의 굳건한 믿음도 함께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내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내면적으로는 장애인 예술인을 발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참여까지 돕는게 목표예요. 물론 '스페셜 K'라는 경연대회가 있긴 한데 종목이 다섯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극히 제한된 종목인 거죠. 일례로 클래식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바이올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악기가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현악, 목관악, 금관악, 피아노 정도로는 세분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장애인문화예술 기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몇 년째 예산을 신청 중인데 기획재정부에서 통과되질 않고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인해 발전할 기회의 폭도 좁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로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에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2020년 내다보기

장예총이 심은 씨앗이 2020년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는 예술인 여러분께 현재 진행형인 사업과 새롭게 준비중인 사업 소개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홍이석 상임대표와 장예총이 품은 비전은 무엇일까?

"현재 진행 중인 지정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스페셜 K, 문학미술대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세 사업을 잘 만들어갈 것인가가 큰 과제죠. 올해는좀 더 발전된 계획과 기획으로 꾸며보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획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 단체들 또 문화예술인들이 개인적인 노력은 잘 해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각자가 지닌 하나하나의 콘텐츠는 좋은데 이걸 기획해서 마케팅하고 보여지는 단계까지 가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레나 마리아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야, 저 사람 노래 잘한다' 하고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이 기획이라는 거죠. 마케팅이라는 거죠. 장예총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인 모두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잖아요. 장애 올림픽 때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다음 계획으로는 올해 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 해외 장애인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공연하고 교류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덧 끝인사를 나눌 시간이 다가왔다. 소식지 AND의 발행인으로서 홍이석 상임대표가 남긴 소망으로 기분 좋은 만남의 문을 닫는다.

"소식지 AND가 전국의 장애인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을 통해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다양한 예술인을 발굴해내고 함께 한다면 이 소식지가 사회 속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글 _ 조일연　사진 _ 이한뫼

"더불어 우리 장예총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영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장예총과 함께하는 예술 FAMILY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발굴하여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이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장예총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2. 사.꿈틔움 / 3.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 4. 사.빛소리친구들 / 5.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6. 사.우리들의눈 / 7.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 8.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9.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10.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 11. 사.한국장애인서예협회



01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창립년도 : 1987. 09. 01.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81 두산베어스 204
대표전화 : 02-2282-7114
E-mail : nanumtv@daum.net
홈페이지 : www.nanum.tv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국내 및 국제간의 교류를 주도하여 각종 장애인 문화사업을 조성하고, 그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국내외 장애인이 함께하는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문화예술 캠프 및 문화세미나 및 예술제 개최, 장애인합창단을 육성 발전을 위한 전국장애인합창대회 개최, 장애인 문화학교 및 해외 장애인예술단과의 교류 등



02 사. 꿈틔움



창립년도 : 2011. 07. 1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11, 4층
대표전화 : 02-702-6990
E-mail : hiphd4u@gmail.com
홈페이지 : www.phd4u.co.kr

사단법인 꿈틔움은 장애인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등 참여를 통하여 문화향유를 가능하게 하여, 자립심 고취와 자활 기반을 마련하여 함께 사는 사회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장애인에 미술교육, 미술공모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미술 · 음악 · 종합예술 등), 전문가와 예비 작가의 멘토링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강사 육성,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발, 장애인 모델 양성, 장애인 가족 및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



03 사.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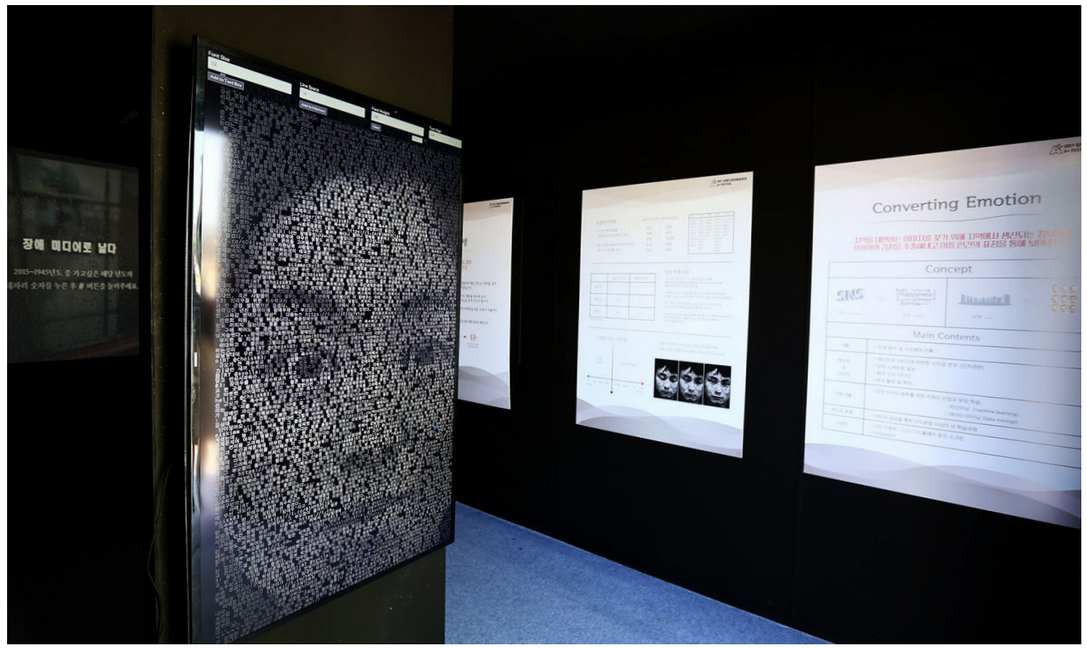


창립년도 : 2008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공항대로41길 66, 512호
(세신종합상가, 등촌동)
대표전화 : 02-6737-0900
E-mail : bitsori@hanmail.net
홈페이지 : www.유니버셜씨어터.com

사단법인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는 2008년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을 모토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 문화예술법인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적 발전과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 장애인문화예술가 육성 및 콘텐츠 창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콘서트, 장애인대중가수 발굴프로젝트 이음가요제, KBS3라디오 공개방송 더불어콘서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음바자회 등





04 사. 빛소리친구들



창립년도 : 2006. 09.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44 403호
대표전화 : 02-309-7922
E-mail : with.lsf@daum.net
홈페이지 : lsf.kr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은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장애인이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발굴된 장애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문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장애인무용단운영, 교육 · 연구, 국내외 공연,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 장애인전문예술인 양성사업 'MADE', 교육연구사업, 빛소리친구들 정기공연, 장애인 공연예술 국제교류 등

05 사.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창립년도 : 2002. 01.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3길 34 202호
대표전화 : 02-2698-9191
E-mail : wheel1004@daum.net
홈페이지 : www.wheel.or.kr

사단법인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문화예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예술활동 기획사업, 장애인 문화 · 재활정보지 발행, 장애인 재활캠프 및 문화예술탐방, 문화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센터의 운영, 장애인UCC 영상교육 및 제작 등



06 사.우리들의눈



창립년도 : 1996.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1515호 (청진동,Tower8)
대표전화 : 02-733-1996
E-mail : info@artblind.or.kr
홈페이지 : www.artblind.or.kr

사단법인 우리들의눈은 장애인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등에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가능케 하며, 자립심 고취와 자활 기반 조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함께 사는 사회의 풍토 조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예술가들이 맹학교를 찾아가 진행하는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작품 전시, 점자촉각책 제작, 교육용 APP개발 등 창의적인 교육 · 문화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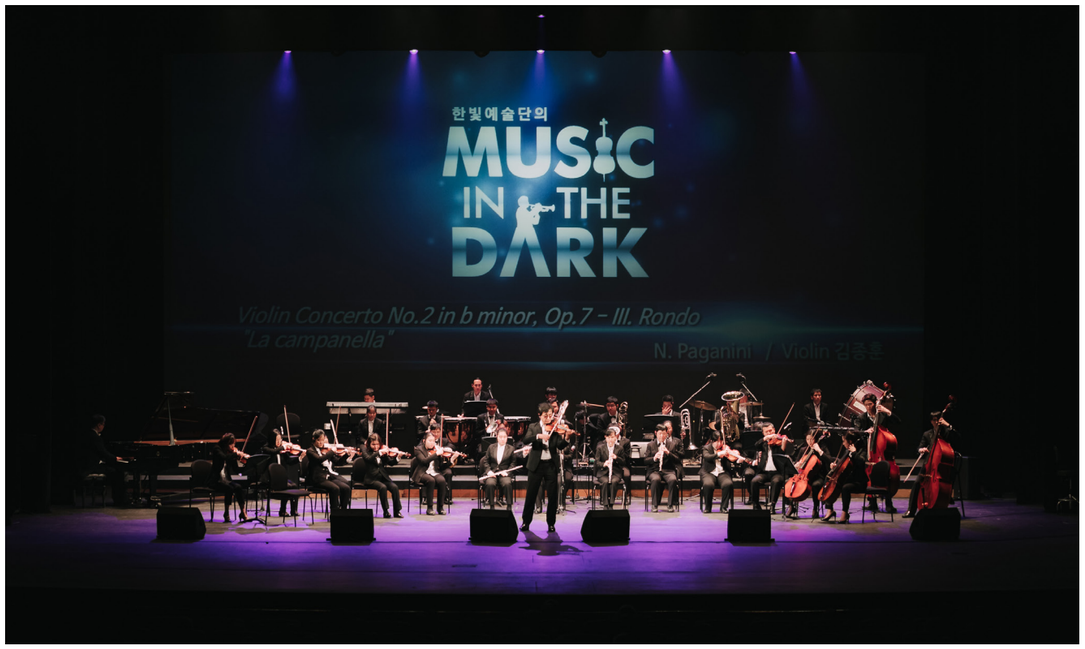
07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창립년도 : 2009. 07. 14.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대표전화 : 02-861-8848
E-mail : emiji100@gmail.com
홈페이지 : www.emiji.net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장애인예술의 주체인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 및 표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장애예술인 주권 신장,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 및 인식 개선, 장애예술인지원법률 제정 청원 등





08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창립년도 : 2010. 01. 28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38 2층
대표전화 : 02-989-3148
E-mail : jooarmy@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itarts.co.kr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역량을 갖춘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입니다.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은 음악 안에서 자유로우며, 장애를 극복한 삶과 연주를 통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 콘서트 동행, 아름다운 마을음악회, 한빛오케스트라, 한빛 챔버오케스트라, 브라스 앙상블, 타악앙상블, 프로젝트 더 밴드 운영 등

09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창립년도 : 2003. 04. 18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6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307호
대표전화 : 02-859-8288
E-mail : bluesky-8288@hanmail.net
홈페이지 : www.bluesky82.org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문화의 혜택을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는 이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인들에게 밝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 장애청소년예술제, 나눔연극제 개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Heart&Heart, 지역문화 체험캠프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각종 문화 관련 연구 및 발표사업 등



10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창립년도 : 1995.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5길48, 1층 105, 106호(중계동, 현대종합상가)
대표전화 : 02-2062-1571
E-mail : art1571@hanmail.net
홈페이지 : www.ableart.net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는 문화적 소외와 배제의 그늘 속에 있는 유망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며, 문화 소외 장애인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를 통해 이들의 비상을 지원하고 문화 복지 분야의 발전에 일조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장애인 미술 강사 발굴 및 육성, 전시회 및 프로그램 제공 등



11

사.한국장애인서예협회



창립년도 : 2010. 12. 20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 412호 (한강그랜드오피스텔)
대표전화 : 02-2233-3111
E-mail : sart1571@hanmail.net
홈페이지 : ablecalli.com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서예협회는 문화적 소외와 배제의 그늘 속에 있는 유망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소외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복지 분야의 발전에 일조하는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장애인서예가들을 위한 장애인서예강사양성 및 강사파견사업, 대한민국장애인서예대전, 한중일장애인서화교류사업과 해외장애인 예술기관과의 교류 및 초청행사참가를 통해서 세계 장애인서예가들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 등

장애인이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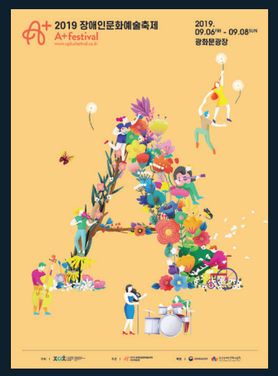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전국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유대 강화와 협력 교류로 장애예술인이 예술의 주체로서 활동하며 예술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 활동을 전문 직종으로 개발하여 고용 창출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선진문화 사회의 실현으로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장애인문화예술축제 · A+ Festival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

〈 2019년도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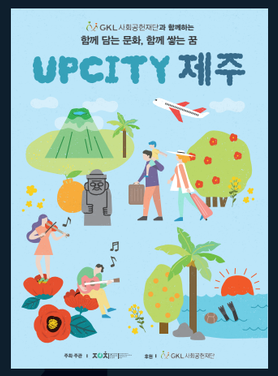
2019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2019.09.06. ~ 09.08. 광화문광장



대한민국장애인
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본선 2019.07.16. ~ 07.18. CTS아트홀
결선 2019.08.23.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아트홀
콘서트 2019.12.28. CTS 아트홀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2019.12.07. ~ 12.09.
인사동 마루갤러리 지하1층 전시실



함께 담는 우리 문화,
함께 쌓는 꿈 UPCITY 제주
2019.09.29. ~ 10.02. 제주



Dispecial in 세비치아
2019.08.31. 세빛섬 내 예빛섬



손으로 보는 우리역사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미술대전 Review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이 광 복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심사위원

임 일 호
(주)가나오케이 문화사업부 전시기획팀장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심사에 임하면서 우리 심사위원들은 모두 많은 응모편수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애인문학의 밝은 미래를 시사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품마다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보여 희망을 갖고 글쓰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법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보내온 응모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게다가 감상만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기법이나 창작 테크닉을 많이 공부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작품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같은 경우 수기나 회고록 수준의 스토리텔링 보다는 극적 구성이나 반전 등의 문학적 장치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가의 사유체계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수작 〈밀링〉을 대상 작품으로 뽑는데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쓴 작품이라고 해서 너무 장애라는 소재에 함몰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애라는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간다는 건 비장애인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줄 수 있는 문학성의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독자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입선자들에게는 무한한 축하를, 낙선자들에게는 다음 기회가 또 있음을 알리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이 2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장애인 미술대전을 심사하며 작품에 담긴 남다른 열정과 예술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며 장애와 작품을 결부시켜 바라보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했습니다. 작가의 예술관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만 장애가 작품에 미쳤을 영향을 참고하되 최대한 출품작 자체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들이 완전한 창작의 주체로 스스로의 예술관을 만들어 나가며, 동시에 본미술대전도 장애인 작가가 아닌 '작가'로서의 등용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성작가 못지 않은 완성도를 보인 강현지 작가의 〈잠들지 않는 거리〉를 대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비되는 소재들이 서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며 작가의 독창적인 시선이 표현된 작품입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시 맞는 봄!!〉 역시 탁월한 묘사력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꽃과 풀잎 하나 하나를 정성스레 그려내며 호소력 있는 화면을 만들어 내었고, 치밀한 묘사에서 작품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미경 작가의 〈추억(비의 멜로디)〉, 김순영 작가의 〈시경〉, 조규열 작가의 〈이바지(구절함)〉 역시 각 부분에서의 정진과 탁월한 성취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김리나, 송현진, 최주림, 이경하, 고상호, 이영미 작가의 작품에서도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오랜 시간과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작이 많아 특선 및 입선작을 선정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지 작품 평가가 아닌 열과 성을 다한 작품들 사이를 거닐며 화폭 너머로 참여 작가들의 삶과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본 행사가 참여해주신 모든 작가분에게 스스로의 예술적 성취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미술계에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예총이 만나는

예술 공감,

아티스트

· 공연 영상은 장예총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com/장예총



제7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Young artist상 _ 핸드스피크 아티스트

핸드스피크 아티스트 지연은 공연 연출가, 수어랩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키썸, MC래원, 옥상달빛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 작업을 했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농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더 진정성 있게 담아낼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핸드스피크 농인아티스트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역사극, 뮤지컬, 단막극, 더 많은 가수와의 수어랩 콜라보 등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새로운 공연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다. 농예술 콘텐츠가 더 많이 사랑받고 농인과 농문화가 더 친숙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농뮤지컬을 해외 무대에 올리는 기회를 꿈꾸며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7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대 상 _ 성악

생후 시신경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주 약한 시력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많이 불편하지 않았고 장애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커가면서 2번의 망막 박리 수술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시력마저도 없어져 갔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일들이 도움 없이는 안되었고 배우기 싫었던 점자도 공부하고 지팡이 사용법을 배웠다. 그 상황에서도 "도 쉽지 않았지만 노래 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평소에 칙칙하던 일상에서 노래를 할 때 만큼은 행복하고 모든 것들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잘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겼다. 노래하는 자세, 인상쓰는 표정, 부정확한 입모양 등 사소하지만 고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럼에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느껴질 때 마다 뿌듯했고 자신감이 생겼다. 노력은 배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증명하듯 큰 상도 많이 받고 요즘은 공연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만약, 그때 내가 음악을 만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가 무얼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간다.
특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대학을 2020년 졸업한다. 재학 중에 활동한 오페라 공연 La Boheme 과 La Traviata 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던 Musetta와 violeta 역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나만의 음악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리고 넓은 세상에서 실력을 쌓고 비장애인과 견주어도 부족하지않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싶다. 듣는 이들에게 기쁨과 힐링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될 것이다.

장애총이 만나는

예술 공감,

아티스트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대 상 _ 시 '밀링'

작품 설명 _ 밀링에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밀링이 돌아가는 공작기계 작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극야와 백야와 쇄빙선이 지나가는 극지방이 무대이다. 밀링은 비틀림날이 돌아가며 쇠를 깎아내고, 쇄빙선도 프로펠러를 돌려 뱃머리로 얼음을 깨고 나아간다. 밀링과 쇄빙선, 그리고 밀링공 김씨의 작업장과 혹독한 북극환경의 합일점을 찾아내어 접근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본인 소개 _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군복무시절 오른손을 크게 다쳐 3번의 수술로 손가락마디 몇몇이 붙어 오른손이 갈고리모양으로 변했다. 그래서 별명이 후크선장이다. 오랫동안 동화쓰기를 하고 시와 소설을 공부했지만 시로 이렇게 큰 상은 처음이다. 주말이면 지리산 뱀사골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공포동화에 매진중이다. 그 동안 지은 책으로 주인공이 청각장애인인 〈소리를 보는 아이〉, 시각장애인인 〈소리당번〉, 그리고 목발사용 장애인을 다룬 〈보랏빛 나팔소리〉가 있다.

활동 계획 _ 주말마다 뱀사골에서 지내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지리산에 매료되어 거기 동, 식물을 다룬 생태동화도 준비 중이다. 밀링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북극을 짝사랑해온 보상인 것만 같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북극으로 떠날 수 있는 큰 탄력을 받게 되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행 준비도 단단히 해야겠다.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 상_ 서양화 '잠들지 않는 거리'

작품 설명 _ 오늘날 도시인들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낮과 밤, 다양한 형태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때로는 분주하게, 또한 느리게, 또는 무신경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표현해보았다. 태양 아래 모습에서, 석양 이후의 밤의 불빛 아래서 여러 형태의 모습에서 다음 날까지 잠들지 않는 현대인들의 빛의 색들을 표현해보았다.

본인 소개 _ 안녕하세요, 제 29회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는 강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난 이후 소리가 단절된 상황에서 미술은 저만의 세상과 소통하는 대화로 어렸을 때는 놀이가 되었고 자라면서는 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저의 모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양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단 참여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전을 했는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욱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저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있었지만 이번 참여를 계기로 저에게 또 다른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평 또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 계획 _ 앞으로는 시야를 넓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지금처럼 작업과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꾸준한 전시와 도전의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겠습니다.

장예총이 전하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

글 _ 윤혜원 기획실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과 보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을 선도하기도 하고, 혹은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후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법적 기반인 '문화예술진흥법'이 1972년 제정되면서 문화산업의 육성 · 지원, 국고보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장애 예술분야에 비해 장애예술의 지원정책은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정부는 1998년부터 5개년 단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웠으나 그동안은 장애인 문화 · 예술 향유에 대한 정책 비중은 크지 않았다. 1차부터 4차까지의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삶의 질 향상, 교육 등 기본적인 것들을 개선 해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시행중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는 장애인들의 문화 · 예술 · 체육 등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들이 비중 있게 실려 있다. 이는 장애예술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의 문화 · 예술향유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이번 5차 기간은 장애인 문화 · 예술 지원 정책을 심도 있게 펼칠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수많은 장애예술가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예술활동을 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본 지면을 통해 소개하려한다.

먼저 정부에서 세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실려 있는 문화 · 예술 정책의 큰 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장애인의 문화 · 예술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2018년 개인당 연 7만원에서 2021년까지 연 1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만 9세에서 24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의 예술 장르별(클래식, 공연, 무용, 미술, 도예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 관객 및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 관람할 수 있는 폐쇄 상영시스템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관광 · 여가 향수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 영 · 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열린 관광지는 누적 29개소, 2019년 신규 24개소가 선정 완료되었다.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은 2005년 문화부에 체육 부문이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문화예술 전담과가 설치된 것은 2009년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정책 수립은 11년의 역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주요사업은 '함께누리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향수와 장애 예술을 지원해 왔고 현재 2015년 건립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위원(장문원)에서 대부분의 공모사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매년 1월 장문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크게 6개 유형(창작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향수 지원,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 국외리서치 활동 지원)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단체와 개인으로 나뉘고 장애 · 비장애 예술단체들 모두 지원 할 수 있다. 단, 장애인예술단체란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단체 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여야 한다. 사업 유형별 지원 금액이 다르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에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출범했다. 예술인들의 불공정한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 신문고 운영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지원과 창작준비금지원과 예술인 파견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과 예술인 자녀돌봄지원까지 복지 혜택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에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술활동증명 사업으로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 여부 선택 확인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활동증명을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추면 된다. ①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②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③ ①,②에 준하는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11개 예술 분야(문학, 미술,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 최근 일정기간 ①예술활동 혹은 ②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을 증명한 예술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접수 확인 및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예술인패스를 신청 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는 전국 문화예술기관 관람료 및 문화예술 공간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 · 비장애 예술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잠실 창작스튜디오는 2007년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내에 구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을 재활용하여 시각예술분야의 장애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창작공간으로 국내 최초, 유일의 장애예술인 창작공간이다. 창작스튜디오 2개실과 다목적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2011년부터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서울시창작공간'으로서 지속적인 장애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2012년 7월부터 공간의 명칭을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변경하여 시각예술분야(회화,미디어,조형 등)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가들을 위한 전문 레지던스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술시장에서 장애인이 아닌 경쟁력 있는 전업 작가로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입주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전시와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 · 육성하는 지원사업 '프로젝트A'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시작된 7개 예술분야의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도 운영 되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장애인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변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생겨나길 바라며 장애예술가들에게 그 혜택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국회에서 전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장애인위원회를 구축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각 분야의 정책들을 한곳에 모아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 추진과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들을 수렴하고 있다. 이중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과 향유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세우는데 적극 반영하려한다.

1. 장애인문화예술지원법 제정 및 기금조성

먼저 장애인문화예술지원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대한 현장요구사항을 소개하려 한다. 현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문체부산하 사단법인 20여 곳을 비롯하여 수많은 풀뿌리 단체들이 있지만 국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전무하며, 문체부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예술로 배정되어있는 예산은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이다. 직접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요구는 현재의 문화예술진흥법으로는 해결하거나 개선시킬 수 없어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을 개 · 제정하고 장애인문화예술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2. 장애예술인 장애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건립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예술단체는 전무하며,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을 대변하고 그들만의 활동공간과 정부기관 및 예술단체간의 정보시스템 부재로 어려움이 있으며 전용 공연장 등 시연장의 부재로 전시 및 공연 시 장소의 섭외가 어려울뿐더러 관람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를 위해 여의도 이룸센터 같은 장애예술단체 및 유관기관이 입주하고 건물 내 공연장 및 전시실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의 건립이 필요하다.

3. 장애예술인을 위한 아트플랫폼 아트링커(Artlinker) 구축

장애인문화예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늘 중요한 화두이다. 장애 판정부터 장애인예술교육 및 장애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등록을 위한 장애예술가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4.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정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 관광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전체의 무장애 관광 분위기 조성으로 관광 산업의 변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2019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취약계층의관광지원에 관한 내용이 공표 되었다. 복지적 관점에서의 관광으로 영역 간의 이해 충돌이 생기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책 발전이 더디고 파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문체부 중심의 무장애 관광 정책 확대 및 정부–지자체–민간 협의체가 필요하고 복지부의 영역에서는 현행 활동지원 및 요양보험 서비스에 '관광활동'을 포함하고 지방공항과 저가항공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

장애예술인의 예술권 확보와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언제나 애쓰고 계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소식지 'AND'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1. 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법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당보다도 먼저 공감해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에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했고,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2.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은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금의 설치에 대해 정부의 반대가 있어 발의 이후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안으로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장애예술인의 권익을 증진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이끌어 정부와 타당을 대상으로 동법의 통과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타당의 의견으로 동법은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다른 법안들에 대한 각 당의 이견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3. 정부와 여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 법안을 논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의 상정과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의 민생법안들이 논의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래통합당은 논의가 중단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의 재논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장애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앞장서 왔듯이, 앞으로도 장애예술인 모든 분들의 창작활동 여건 개선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발전을 위해 저희 미래통합당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정당의 정책 내용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정의당 정책실에 2020.01.06 공문을 보내 회신이 온 두 정당의 내용을 실었음.



많은 분들의 참여와 격려로
2019년 한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더욱 다양하고 뜻깊은 소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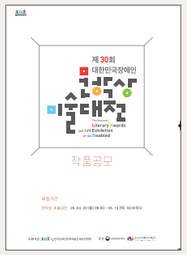
장예총이
함께하겠습니다

장예총 사업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접수 2020. 02. 24~06. 05
본선 2020. 07. 14~07. 16 CTS 아트홀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

접수 2020. 04. 20~05. 14
전시회 2020. 07. 29~ 08. 02(예정)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2020. 09. 11~09. 13 광화문광장

회원단체 사업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ulture Exchange for Disabled

제40회 서울장애인 합창예술제
일시 : 2020.04.2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청년작가전
일시 : 2020.06.17.~30 장소 : 갤러리 라메르

2020 국제장애인문화 EXPO
일시 : 2020.08.12.~14 장소 : 백령도 일대

2020 국제장애인문화교류 EXOP
일시 : 2020.09.20.~26. 장소 : 미얀마 또는 이탈리아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일시 : 2020.11.20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예정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미술전시회
일시 : 2020.11.20.~27. 예정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서울&부평학교 정기연주회
일시 : 2020.10.~12. 예정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시상식
일시 : 2020.12.03. 장소 : 여의도 글래드호텔

제2회 국제장애인문화예술교류대회
일시 : 2020.12.18. 예정

사.꿈틔움

PHD Pink Heart & Dream 꿈틔움

제9회 꿈틔움 공모전
일시 : 2020.05.04.~06.26

제9회 꿈틔움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일시 : 2020.07.24 예정

2020 JW Art Awards 공모전
일시 : 2020.07. 예정

2020 JW Art Awards 시상식 및 전시회
일시 : 2020.11 예정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특집 공개방송
일시 : 2020.05.27 장소 : 대학로

제5회 이음가요제
일시 : 2020.06.24 장소 : 이음아트홀

제5회 이음바자회
일시 : 2020.10.28. 예정

사.빛소리친구들

빛소리친구들 LIGHT SOUND FRIENDS

장애인문용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일시 : 2020.04.01 장소 : 마포중앙도서관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쇼케이스
일시 : 2020.06.17 장소 : 상암DMS 거리

M Dance Company CIC x 빛소리 친구들
전문무용단체 간 교환프로젝트
일시 : 2020.08.02.~08.21 장소 : 영국, 플리머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사진전
일시 : 2020.06.22 장소 : 시민청 갤러리

2020 제5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
(KIADA2020)
일시 : 2020.07.14.~19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국제장애무용축제 아이겐아티히
2020 초청공연
일시 : 2020.09.21.~09.27 장소 : 독일, 브레멘

사.우리들의눈

ANOTHER WAY OF SEEING

프리즘프라이즈–전국 시각장애인 미술공모전 시상식, 작품전
일시 : 2020.09. 예정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 전시
일시 : 2020.12. 예정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Korea Disabled Artist Association

계간 〈E美지〉 15호~18호 발간

〈솟대평론〉 6호, 7호 발간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장애인 미술협회전
일시 : 2020.11 예정

제2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대상작

*밀링 _김희철

꽁꽁 얼어붙은 쇠붙이는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요란한 굉음을 내지르며 쇄빙선이 지나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얼음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짐승의 괴성 같은 악다구니가 새어나왔다
극야의 오랜 어둠은 그의 나날들처럼
아무리 굴착해도 쉬이 밝아오지 않았다
충혈 된 날이 켜켜이 쌓인 침묵을 털어내며
얼어붙은 밤을 더듬어 나아갔다

단단한 쇳덩어리 안에 웅크리고 깃든 생명이
불빛을 쫓아 힘차게 꼬리를 휘저으며 솟구쳐오를 때
밀링공 김씨의 눈동자에도 불꽃이 피어났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무엇도
충혈 된 눈이 날을 세우면 깎아내지 못할 것이 없었다
그날 오후 깜박 졸았던 대가로
가족의 생계가 달린 뭉툭한 손목을
핏발선 밀링의 비틀림날이 삼켜버렸다
그 후 그는 손목에 갈고리를 달았다
천년을 날아도 접지 않을 날개를 푸득거리며
오랜 극야의 밤을 건너갔다

얼마나 나아갔을까
저만치 힘들게 벌어진 틈 사이로
매끈한 몸체의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였다
밤이 깊었던 만큼 낮이 길어지는 백야의 시작이었다
그래 해보는 거다

* 회전축에 고정한 커터(cutter)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 기계.

후원안내

장예총은 장애예술단체지원사업, 장애예술인교육사업, 장애예술단체정책지원사업, 장애예술인복지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예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합니다.

후원계좌

후원금통장 하나은행 292–910008–79204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기부금통장 하나은행 390–910004–48405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